



MVPR-2008-27

VIP REPORT

2008. 8. 13.

■ 건국 60년 특집

: 국내 기업의 5대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장균, 백흥기, 이주량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건국 60년 특집 : 국내 기업의 5대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	
Executive Summary	i
1. 서론	1
2. 한국 기업 성장의 5대 특징	3
3. 한국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 및 발전 과제	24
■ HRI 경제 지표	30

I. 서론

건국 이후 60년, 한국 경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 대국을 이룩하였다. 1950년대 6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2만 달러를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도 9,698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이러한 압축 성장에는 기업들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겪으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경쟁력을 키우며 성장해 왔다.

II. 한국 기업 성장의 5대 특징

1.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기업 위상이 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

196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은 매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을 기록하며 급속히 성장하였다. 1970년대 초 2,460억 원이었던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2007년 말 1,052조 원으로 4,300배 증가하였다. 2008년 『포춘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15개사가 포함되어 국가별 순위 7위를, 세계 100대 브랜드 가치로는 8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아직 열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10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글로벌 10대 기업 대비 1/6 수준에 불과하다.

2. 경공업 기업에서 중화학 및 첨단 기업으로 고도화 달성

한국 기업은 '50년대 경공업 가공무역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80년대까지 건설·중화학 공업이 선도하였다. 이후 '90년대 들어 전자 및 IT 등 신성장 기업이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국내 경제의 글로벌화를 급속히 진전시켰다. 2000년대는 금융 자유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기회와 위기 측면에서 가장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를 경험하였다. 국제 개방과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한국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금융·무선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함께 특히 NHN, 다음(Daum)과 같은 IT·벤처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써 잠재력을 키워 왔으며, 여전히 한국 대표 기업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3. 내수 기업에서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변신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결과 '70년대 이후 수출이 연평균 18.4% 성장하여 2007년에는 세계 12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국내 기업의 수출지향도(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

율)가 40% 이상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에 주력하였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한국 기업들의 성장 초기에는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주를 이루었지만,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의 결과 최근에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상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2007년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 수는 121개로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수출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하였다.

4. 복합기업(Conglomerate)을 넘어 대형·전문 기업으로 체질 개선

건국 초기 가족 기업의 형태로 출발한 한국 기업은 주식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고속 성장을 구가하였으며, 선진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다각화는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선단식 확장이라는 비판도 제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업종 전문화 및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진출업종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 다각화 정도가 감소하였다. 한국 기업의 성장 전략이 비관련 다각화 위주에서 대형·전문화로 전환된 것은 선진 지배구조 도입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5. 불안정·저수익 기업에서 안정적·고수익 기업으로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발전적 성장을 모색해 왔다. 부실차관기업사태('69~'72년)나 중화학공업조정('80년대) 시기는 구조조정 후 신산업 발굴과 수출 지향으로 성장을 지속했다. 1·2차 오일쇼크('73년~'74년, '78~'81년)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였다. 특히 '97년 IMF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은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를 선진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02년~'05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9.3%를 달성하였고, '98년~'01년 0.4%에 불과했던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5.9%로 급격한 수익성 향상을 달성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16%로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II. 한국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 및 발전 과제

1) 문제점

첫째, 글로벌 기업들 대비 외형 규모나 전문화 정도가 아직까지 열세인 상황이다. 세계 상위 10대 기업 평균 매출액이 2,599억 달러인데 반해 국내 기업은 427억 달러에 불과하며, 국내 기업은 선진 기업 대비 비관련 다각화 비중이 높다.

둘째, 기업 수출 구조가 특정 상품과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

다. 한국 기업의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5대 품목과 중국·미국·일본 등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셋째, 대외 변수에 취약한 기업 운영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원유, 원자재 등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한 원가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금리 변동 등의 금융 위험 노출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넷째, 업종별·기업 규모별 양극화, 노사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력 업종·비주력 업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후진적 노사 문화도 글로벌 경쟁력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가 정신 후퇴 및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 22개국 CEO 대상 조사 결과 한국이 가장 높은 '반기업 정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우리 국민의 기업 호감도 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45.6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 발전 과제

첫째, 세계 500대 기업 30개, 1등 상품 300개 보유로 기업 경쟁력 순위 세계 5위를 달성해야 한다. 기업들은 신성장 확보 노력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제고,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 등으로 대형화·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둘째,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을 추구해야 한다. 작금의 한국 경제를 보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 2의 외환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기관리는 지속가능경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기술(5T: IT, BT, NT, ET, ST) 기반 고부가가치·첨단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산업구조상 신기술에 기반한 첨단 상품 개발과 함께 금융·물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기업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상생의 협력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진 노사 관계 정착도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이라는 해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서 존경 받는 기업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평판 강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국내 기업의 5대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 >

<p>한국 기업 성장의 5대 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기업 위상이 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500대 기업 15개사 보유 국가 순위 7위 - 세계 100대 브랜드 가치 국가 순위 8위 2. 경공업 기업에서 중화학 및 첨단 기업으로 고도화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까지 : 경공업 가공무역, 건설중화학공업이 선도 - 90년대 : 전자, IT로 글로벌화 주도 - 2000년대 : 금융, 무선통신, 벤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3. 내수 기업에서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변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수출 18% 증가율 -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 수 121개로 국가 순위 10위 4. 복합기업(Conglomerate)을 넘어 대형전문 기업으로 체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기업 ⇒ 주식회사 ⇒ 지주회사 - 비관련 사업 다각화 ⇒ 대형화전문화 5. 불안정·저수익 기업에서 안정·고수익 기업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 내실을 적절히 조절하며 발전적 성장 기회 모색 - 기업 경영성과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대폭 개선
--	---

<p>한국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형 및 전문화 정도에서 글로벌 기업에 아직 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0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글로벌 10대 기업의 1/6 2. 기업 수출구조에서 특정 상품 및 국가에 대한 편중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수출품목의 수출이 전체의 44%, 3대 수출국 수출액 비중이 42% 3. 대외변수에 취약한 기업 운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및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짐 - 환율 및 금리 등 금융 변동에 민감한 수익구조 형성 4. 업종별·기업 규모별 양극화 및 노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대 비주력, 대기업 대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심화 - 적대적 노사문화 잔존 5. 기업가 정신의 후퇴와 반기업 정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기업 호감도(45.6)가 기업가 정신을 억제
-----------------------------------	---

<p>한국 기업의 발전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 500대 기업 30개, 1등 상품 300개 보유로 기업경쟁력 순위 세계 5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동력 확보, R&D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2. 위기 관리 능력 배양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기관리로 지속가능경영 확보 3. 신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첨단 사업 기회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에 기반한 첨단 상품 개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4. 상생의 협력 문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 선진 노사 문화 정착 5.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서 존경 받는 기업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 활동 확대, 기업 평판 강화의 일환
----------------------------	--

국내기업의 5대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

I. 서론

○ 건국 60년 한국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작용

- 1948년 건국 이후 60년간 한국경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였음

· '50년대 6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7년 국내총생산(GDP) 9,698억 달러로 세계 13위('04년 11위) 경제 규모를 기록함

· 이 과정에서 '개발 경제의 성공 모델',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강의 기적'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됨

- 이러한 초고속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기업의 성장이 궤적을 같이 함

· '60년대 이후 50여년간 기업의 매출액은 약 1만 5천배, 수출 규모는 약 4만 3천배 증가하였음

· 2007년 기준 포춘 500대 기업에 15개사가 포함됐으며, 반도체·백색가전·선박 등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이 121개에 이르고 있음

< 한국 기업의 현황 >

	1960년	2006년	비교
기업수(개)	15,572	119,798	7.7배
종업원수(명)	315,054	2,925,955	9.3배
매출액(억원)	642	9,115,252	14,198배
수출(억원)	84	3,647,184	43,419배
포춘 500대 기업(개)	0	15(2007년)	-

자료 : 통계청, Fortune 2008

주 : 제조업 기준

○ 한국 기업은 기회는 적극적으로 살리고,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크게 5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해 옴

-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환경 적응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 한국 기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해방 후 민간에 불하된 약 2,700개의 적산기업체¹⁾ 중 오늘날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은 40~50개 정도에 불과함
- 대내·외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적응에 실패하고 도태되었으며, 환경 적응에 성공한 기업들이 지속성장을 구가함

- 한국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기회와 위기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왔음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과 수출 드라이브에 한국 특유의 기업가 정신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 그러나 '70년대 차관기업 부실화, 1·2차 오일 쇼크, IMF 외환위기 등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존폐를 좌우하는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함

-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특징을 보이면서 성장함

- 즉,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한국식 경영 전략을 채택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은 세계 속의 한국 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음

- ①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기업 위상이 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
- ② 경공업 기업에서 중화학 및 첨단 기업으로 고도화 달성
- ③ 내수 기업에서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변신
- ④ 복합기업(Conglomerate)을 넘어 대형·전문 기업으로 체질 개선
- ⑤ 불안정·저수익 기업에서 안정적·고수익 기업으로

1) 적산(敵産, enemy property) 또는 귀속재산(vested property)은 일본인들이 축적해 놓은 재산을 해방 후 미군정청을 거친 후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 국유재산을 말하며, 이른바 '적산불하'로 출발한 한국 기업은 해방 후 국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함

II. 한국 기업 성장의 5대 특징

1.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기업 위상이 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

○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시가총액 등 외형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

- 매출액 기준 연평균 2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

- '61년 이후 2006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전산업 19.1%, 제조업 21.9%의 속도로 성장하여 약 1만 5천배 성장하였으며, 동기간 부가가치는 1만 3천배 수준으로 증가함
- 유형자산 및 총자산의 경우도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 왔음

< 한국 기업의 외형 성장 >

(단위 : %)

구분	전산업			제조업		
	매출액	유형자산	총자산	매출액	유형자산	총자산
'60년대	-	-	-	33.3	-	-
'70년대	41.4	29.0	34.5	39.1	29.6	32.9
'80년대	16.2	16.9	17.7	17.3	18.1	18.1
'90년대	12.8	13.7	13.2	12.2	12.9	12.5
'00년 이후	6.0	2.2	5.5	7.6	2.5	5.6
전기간	19.1	15.5	17.7	21.9	15.8	17.3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전년대비 연평균 성장률

- '70년대 초 본격적인 기업공개 이후 상장 기업수, 시가총액은 각각 270배, 4,300배 이상 증가²⁾

- 국내 주식시장은 1972년 상장기업 66개사, 시가총액 2,460억원 수준에서 2007년 말 상장기업 1,788개사, 시가총액 1,052조원 규모로 증가함

2) 한국증권거래소는 1972년 1월 4일부터 35개 회사를 대상으로 다우존스 방식의 주가지수를 작성하여 공표하였으나, 시가총액 중심의 코스피(KOSPI)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1월 4일 시가총액 = 100)으로 작성되어 오고 있음

- 1996년 개장한 코스닥 시장은 중소 및 벤처기업에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공하여, IT 서비스 산업과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에 적극 기여함

< 주식시장의 발전 >

(단위 : 개사, 조원)

	1972년	1996년	2007년
상장기업 수	66	760	1,788
시가총액	0.246	117.4	1,051.8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 각 호

주 : 1996년 이후는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 포함

-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은 2007년 15개사로 국가별 순위에서 세계 7위를 기록**

- 매출액 기준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한국의 기업은 15개(2007년), 아시아 50대 기업에 속하는 한국 기업은 6개사(2006년)임
- * 국가별 세계 500대 기업 수 : 미국(162개), 일본(67개), 프랑스(38개), 독일(37개), 영국(33개), 중국(24개), 한국(14개)
- * 아시아 50대 기업 속의 한국 기업 : 삼성전자(8위), LG(12위), 현대자동차(13위), SK(15위), 한전(47위), 삼성생명(48위)

< 세계 속 한국 기업의 위상 >

구분	기업 수	국가별 순위
세계 500대 기업(2007년)	15개	7위
아시아 50대 기업(2006년)	6개	3위
100대 브랜드(2007년)	3개	8위

자료 : Fortune, InterBrand

-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 또한 상승하여 질적 우수성을 과시**

- 2007년 기준 한국 기업의 브랜드 중 세계 순위 100위 안에는 삼성전자(20위), 현대자동차(75위), LG전자(94위) 등 3개사가 차지하여 국가 순위에서는 뉴질랜드와 공동 8위를 기록함

2. 경공업 기업에서 중화학 및 첨단 기업으로 고도화 달성

○ 급격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를 경험한 한국 기업들은 유연한 시대 적응과 개척 정신으로 무장한 도전정신으로 지속 성장

1) 시대별 경영 환경과 기업의 성장

① 1950~60년대 : 경공업 가공무역 기업의 발전

-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경공업 중심의 가공무역 산업 집중 육성
 - 1950년대 해방과 한국 전쟁으로 산업 시설이 유실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주로 가장 절실히 요구되던 생필품 생산에 참여하였음
 - 196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던 노동집약적 가공무역에 집중함으로써 경공업 부문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함
 - 섬유, 의복 및 가죽과 같은 경공업의 사업체 수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5년 59.3%, 1960년 50.7%를 기록함

② 1970~80년대 : 건설 및 중화학공업 기업의 선도

- 1970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개발 붐에 따라 건설과 중화학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선도
 - 1960년대 말 부실차관기업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수입 대체 및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함
 - 또한 1970년대부터 국내외의 개발 붐을 타고 건설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여 국내 경제발전을 주도함
 - 이 과정에서 현대, 삼성 등 현재 국내 대표 기업들의 근간이 마련되었으며, 상위 6대 대기업 집단³⁾의 경우 매출액 4천억원(1973년)에서 약 15조원(1980)으로, 동 기간 계열사 수는 116개에서 308개로 급격히 성장함

3)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 쌍용

③ 1990년대 : 전자 및 IT 등 신성장 기업의 등장과 발전

- 1980년대 이후 전자, 통신 산업의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국내 대표 기업으로 등극

-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기통신 등 이 시기 성장한 전자, 통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의 대열에 진입, 세계적 위상을 과시하게 됨
- 이들 신성장 산업 기업들의 성장에 따라, 1980년 12%에 불과했던 전기전자 제품 수출 비중이 2004년에는 40%를 기록하여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④ 2000년대 : 금융, 무선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기

- 국제 개방과 IMF 외환위기는 기회와 위기 양면에서 가장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유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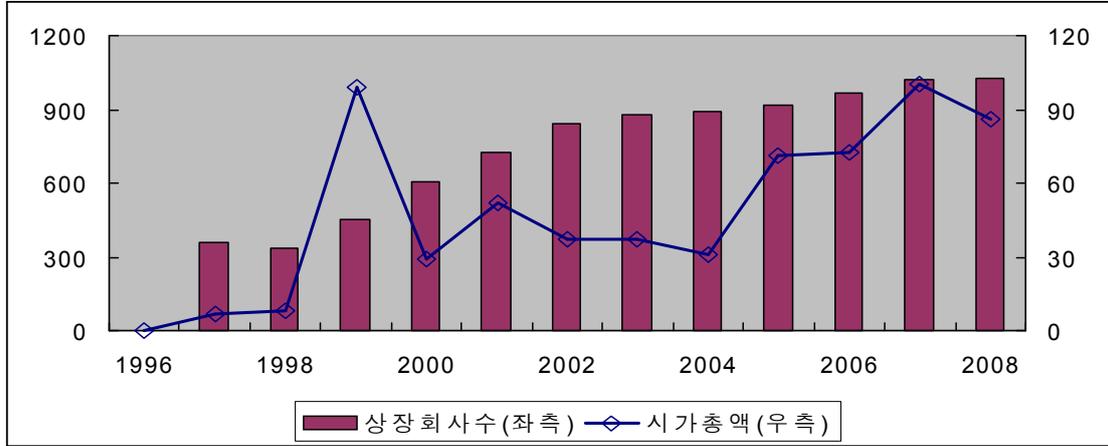
- '90년대 들어 급격히 진행된 금융 및 무역의 자유화는 국내 기업들의 보호 장치를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도전이지만, 성장한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함
- 또한 IMF 외환위기는 당시까지 우리나라 기업에 산적해 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함
- 국제 개방과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한국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만든 계기가 됨

- 특히 IT, 벤처 산업은 여전히 잠재적 신성장 동력으로 존재

- 1996년 개장한 코스닥 시장은 1997년 상장기업 359개사 시가총액 7.1조 원에서 2008년(6월말 기준)에는 상장기업 1,028개사 시가총액 86조로 크게 성장함
- 2000년대 초 벤처 버블이 지나고 난 후에도 NHN, 다음(Daum) 등이 국내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코스닥 시장에 시장가치 1조원이 넘는 벤처 기업들이 등장함(2007년 말 현재, NHN,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메가스터디, 아시아나항공, 태웅, SK컴즈, 서울반도체, 키움증권 등 10개사)

< 코스닥 시장의 발전 >

(단위 : 개사, 조 원)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 각 호

- 코스닥 상장사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인터넷 산업에 비교적 소수의 13개 회사가 등록되어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13.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 상위 5개 산업(인터넷, 금속, IT부품, 기타서비스, 반도체)이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6.3%를 차지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의 산업이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코스닥 시장 10대 업종 >

(단위 : 개사, 억원, %)

순위	산업	상장회사수	시가총액	구성비
1	인터넷	13	114,698	13.4
2	금속	60	87,205	10.2
3	IT부품	108	70,488	8.2
4	기타서비스	51	65,501	7.6
5	반도체	76	59,160	6.9
6	기계·장비	68	48,163	5.6
7	유통	65	41,625	4.8
8	통신장비	74	38,194	4.4
9	화학	49	31,683	3.7
10	제약	38	30,135	3.5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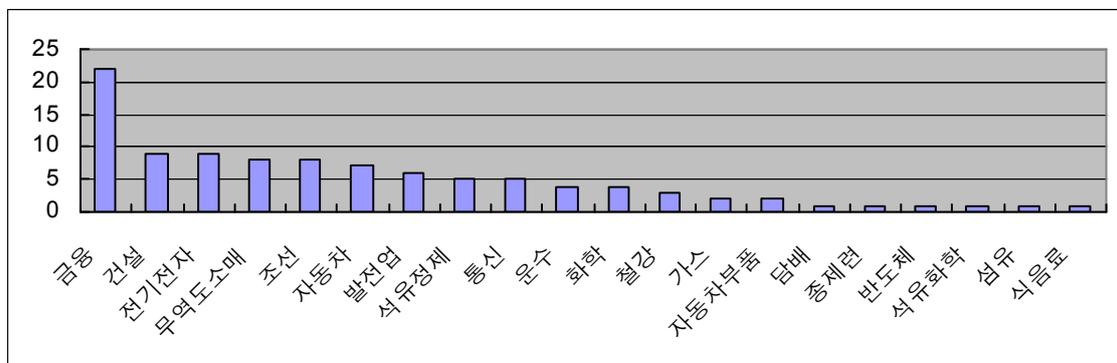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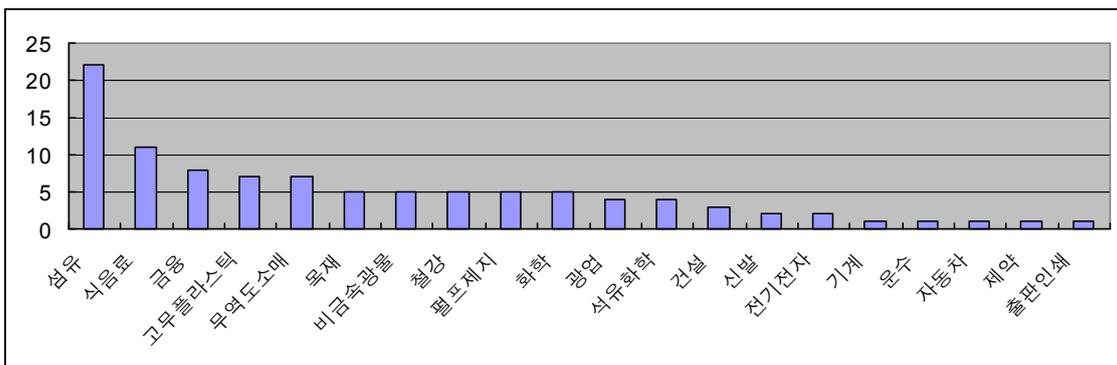
2) 업종 분포 변화

○ 주요 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도를 보면 경공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으로 이동

- 1965년에는 섬유 및 식음료, 2006년에는 금융·건설 및 전기전자가 한국 대표 기업들이 활동한 주요 업종

- 100대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1965년에는 섬유(22개사), 식음료(11개사), 금융(8개사) 업종 등에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 2006년에는 금융(22개사), 건설(9개사), 전기전자(9개사)가 100대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종으로 변화함
-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경공업 업종의 기업들이 탈락하고 중화학 및 전자통신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 100대 기업의 업종별 기업 수 분포 , 1965(위) · 2006(아래) >



자료 : 현대경영, 2007년 8월 호

3) 10대 기업 변화

○ 10대 기업의 경우, '60년대 섬유, 제분, 제당 등 3백(白) 산업 위주 기업에서 2000년대에는 전자, 에너지, 기간산업 등이 중심 기업으로 변화

- '60년대 10대 그룹 중 2000년대까지 10대 그룹으로 남아 있는 기업은 삼성, LG 등 2개 기업에 불과

-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과정에서 적응에 실패한 기업들이 위축되거나 도태되는 과정을 경험함
- 고속 성장을 보이며 장기간 국내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던 대우, 현대 등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계열 분리 등을 거치면서 기업 순위에서 크게 위축됨

< 시대별 주요 업종 및 대표 기업 >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경제정책 및 환경의 변화	산업기반 유실, 원조경제	수입대체 공업화, 수출 드라이브, 차관경제	중화학공업화, 비관련 다각화와 과잉중복투자	중화학조정, 3저 호황, 민주화	세계화, 외환위기, 업종전문화	글로벌 경쟁
주요 업종	3백 산업	목재, 섬유, 식품, 무역도소매	건설, 철강, 종합상사	전자, 자동차, 종합상사	IT, 전자, 통신서비스, 반도체	전자, 통신, 금융
10대 기업 (매출액)	(1960년) 삼성 삼호 개풍 대한 락희 동양 극동해운 한국유리 화신 판본	(1965년) 동명목재 금성방직 판본방직 경성방직 대성목재 양희수출조합 동일방직 통신화학 대한제분 제일제당	(1980년) 한국전력 현대건설 포항제철 대우실업 삼성물산 선경 대한항공 효성물산 대림산업 동아건설	(1990년)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대우 한국전력공사 포항종합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유공 럭키금성상사 럭키금성사	(1999년)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삼성전자 LG상사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SK 포항종합제철 LG전자 한국전기통신	(2006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SK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기아자동차 S-오일 한국가스공사

주 : 1950년대 10대 대표기업은 그룹 기준임

3. 내수 기업에서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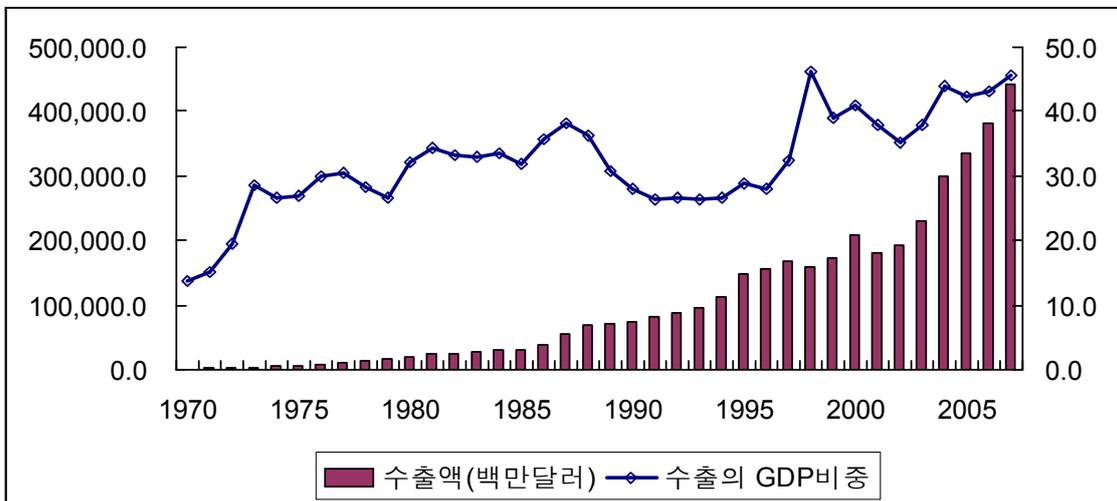
○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는 국내 경제 및 기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

- 정부는 원조 의존적 경제구조(1950년대)에서 탈피하고자, 1960년대에 들어 해외차관을 이용한 공업화 및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히 실시함(환율통제, 수출목표제, 내 기업 보호, 정책융자 등)
- 1970년대 이후에도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 정책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함(정책융자, 세제인하, 인프라 구축 등)
-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수출 실적을 통한 추가적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함

< 수출액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백만 달러, %)



-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결과 수출이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8.4% 성장하여 2007년 기준 세계 12위 수출국으로 부상

- 1970년 12억 1,2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07년에는 4,422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365배 증가하였음

- '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수출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반전되어 2007년 현재 45.6%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80년대 말 이후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수출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내수 시장의 확대와 대외 여건의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현재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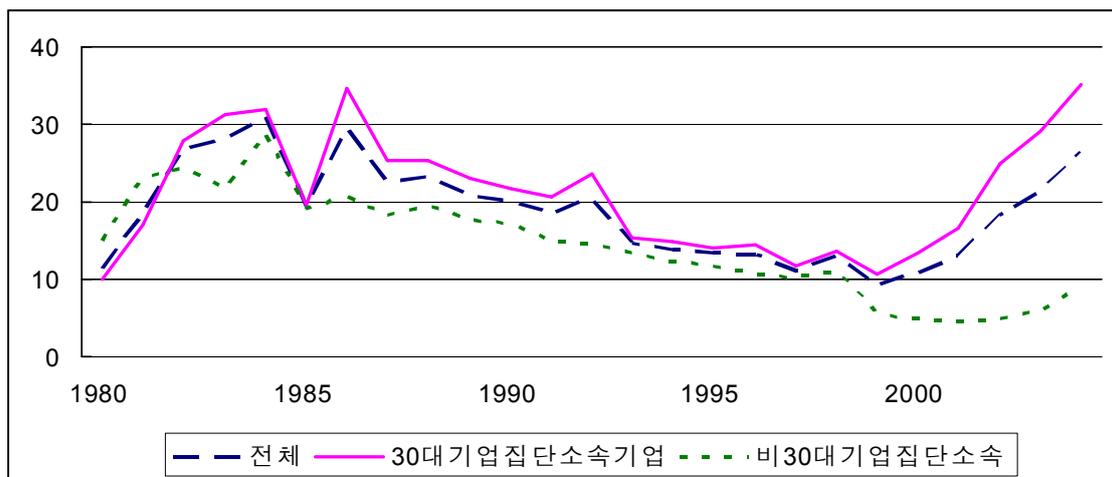
- 국내 기업들의 수출지향도(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80년대까지 급격히 상승한 후 외환위기까지 감소, 이후 다시 상승

-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출지향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1984년에 최고치인 30.9%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외환위기 직후 1999년 최저점 9.1%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80년대 후반부터 수출지향도가 하락한 배경에는 1987년 이후 노동자 실질 임금의 급등에 따른 구매력 증가 및 건설업 호황 등의 내수확대, 그리고 3저 호황 뒤 국제 분업 체계의 구조변화라는 외적 조건의 악화가 있었음

< 국내 기업의 수출지향도 추이 >

(단위 : %)



자료 : 이근외(2007), 「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진화 I」,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0년대에 들어 경제 개방과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지향도도 동반 상승
 - 2004년에는 수출지향도가 26.4%를 기록하며 1980년대 중반의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음
 - 수출 기업을 대그룹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할 때, 대그룹 기업의 수출지향도가 중소기업의 그것에 비해 항상 높아, 대그룹 소속 기업들이 주로 글로벌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상품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변화
 - '7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류, 가발, 단순 조립 전자제품)이나 원자재(합판, 철광석)로 저부가가치 상품이었음
 - 하지만, 2007년 5대 수출품을 보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 전자 제품과 자동차, 선박 등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력 수출품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구성이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이동하여 왔는데, 수출품 중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은 현재에도 압도적으로 높음

< 우리나라 5대 수출품 구성의 변화 >

순위	1970	1980	1990	2000	2007
1	의류	의류	의류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2	합판	철강판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3	가발	신발	신발	자동차	반도체
4	철광석	선박	영상기기	석유제품	선박
5	전자제품	음향기기	선박	선박	컴퓨터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2007년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 수는 121개⁴⁾, 2005년 HS 6단위 기준으로 한 국가별 순위 17위에 해당
 - 2005년 기준으로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 수(HS 6단위 기준)가 59개로 108개 세계 수출국 중 17위임

<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 보유국 순위(2005년) >

순위	국가	품목수	순위	국가	품목수	순위	국가	품목수
1	중국	958	7	벨기에	145	13	대만	85
2	독일	815	8	네덜란드	135	14	인도네시아	68
3	미국	678	9	영국	123	15	스페인	68
4	이탈리아	304	10	홍콩	116	16	스위스	66
5	일본	280	11	인도	107	17	한국	59
6	프랑스	168	12	캐나다	93	18	태국	48

자료 : 박필재(2007), “2005년 세계수출 점유율 1위 품목과 변동요인 조사”, 국제무역연구원

- 전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1위 품목 합계 비중은 13%로 세계 14위 수준
 - 이들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들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품목 수로는 경공업제품 25개, 중화학공업 제품 35개, 기타 1개이며,
 - 금액 기준으로는 경공업이 전체 수출액의 17.8%, 중화학공업이 82.1%로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의 수출시장 비중 및 순위(2005년) >

(단위 : %)

순위	국가	비중 ¹⁾	수출비중 ²⁾	순위	국가	비중	수출비중
1	독일	17.4	10.1	10	싱가폴	2.0	2.4
2	중국	16.7	7.9	11	프랑스	1.9	4.5
3	미국	14.3	9.4	12	홍콩	1.7	3.0
4	러시아	6.5	2.5	13	네덜란드	1.6	3.3
5	일본	6.2	6.2	14	한국	1.3	3.0
6	사우디아라비아	5.6	1.9	15	아일랜드	1.2	1.1
7	벨기에	3.7	3.5	16	멕시코	1.17	2.2
8	캐나다	3.4	3.7	17	대만	1.14	2.0
9	이탈리아	3.1	3.8	18	영국	1.11	4.0

자료 : 박필재(2007), “세계수출 점유율 1위 품목”

- 주 : 1) 해당국 1위 품목들의 수출시장 합계가 전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 2) 주요국의 전체 수출금액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8년 1월 25일 (국가별 순위는 제공되지 않음)

4. 복합기업(Conglomerate)을 넘어 대형·전문 기업으로 체질 개선

○ 사업 다각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맥락을 같이 하며, 특히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 체질 전환의 계기를 마련

- 건국 초기 가족기업의 형태로 출발한 한국 기업은 주식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고속 성장을 구가하였으며, 선진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형태로 발전
 - 가족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으나 한국 기업 발전 과정에서의 변혁에는 한계를 지님
 - 한국 기업의 성장 전략에 있어 주식회사의 발전은 지배구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대주주, 경영진, 소액주주, 시민단체 등)를 고려케 함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그룹 집단의 지배 행태가 이슈화되면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소유의 집중과 다각화에 의한 기업 확장이라는 특징을 보임
 - 집중된 기업지배구조는 이론적으로 사업다각화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보임
 - 즉 경영진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사업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됨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이사회, 사외이사,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 확대가 경영 의사결정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부여하는 계기로 작용함
- 특히 대기업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 다각화는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선단식 확장이라는 비판도 제공
 - 과거 정부는 빠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을 결성하는 것을 장려했고 기업 규모를 키운 기업에게 자원배분에 있어 우선 순위를 부여함
 - 즉 기업집단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관으로 빌려온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득이었음

○ 비관련 사업 다각화를 통한 외형 성장 방식에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의 대형화·전문화를 추구하면서 발전

- 정책금융과 보호정책을 통한 국가 주도적 성장 체제하에서 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전략으로 나타남

·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1989년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관련 다각화
비중은 낮은 반면 비관련 다각화 비중이 높음

· 산업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 그리고 기업의 다각화 전략은 경제 전체의 차
원에서는 과잉 중복투자를, 개별 기업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자원
을 낭비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함

* 1960~1963 부실기업정리, 1969~1971 부실차관기업정리, 1980~1988 중화학
투자조정 및 산업 합리화 조치, 1993~1997 업종전문화제도 등

< 기업 다각화 유형의 국제 비교 >

(단위 : %)

다각화 유형	한국 (1989)	일본 (1973)	미국 (1969)	영국 (1970)	독일 (1970)	프랑스 (1970)	이태리 (1970)
전문화	36.8	53.3	35.4	40.0	44.0	48.0	43.0
전업형(SR>0.95)	8.2	16.9	6.2	6.0	22.0	16.0	10.0
부분전업형(0.95>SR>0.7)	28.6	36.4	29.2	34.0	22.0	32.0	33.0
다각화	63.2	46.7	64.6	60.0	56.0	52.0	57.2
관련형(SR>0.7, RR>0.7)	6.1	39.9	45.2	54.0	38.0	42.0	52.0
비관련형(RR<0.7)	57.1	6.8	19.4	6.0	18.0	10.0	5.0

자료 :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8

주 : 1) SR(전문화 비율)= 계열내 최대단위 기업의 매출액/재벌그룹 전체의 총매출액

RR(다각화 관련 비율)= 계열내 최대 관련 소그룹의 총매출액/그룹 전체의 총매출액

2) 한국은 49개 대기업, 일본은 118개, 기타 국가는 100개 기업집단

○ 외환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업종 전문화 및 대형화가 급
속히 진전

- 업종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결과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는 증가하

였지만 실질적인 다각화 정도는 감소

- 30대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수는 '95년 471개에서 2004년 751개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평균 진출 업종 수의 증가세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4.33업종에서 4.30업종으로 절대적으로도 감소하였음

< 30대 대기업 소속 계열사의 다각화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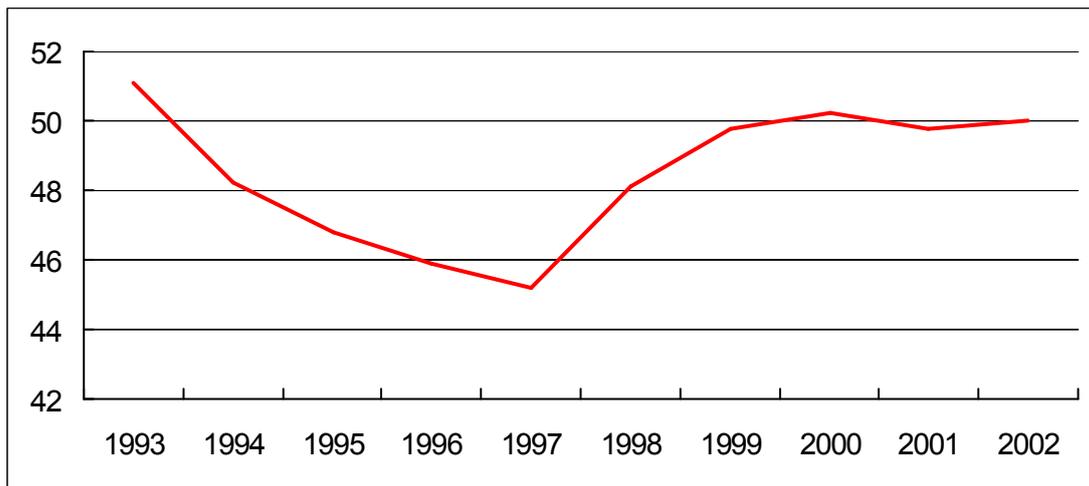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전체계열사수	194	335	398	471	578	751
상장된 계열사수	99	148	155	176	187	194
진출업종수(평균)	2.57	3.60	3.67	4.20	4.33	4.30

자료 : 이근 외, 『해방이후 한국기업의 진화 1』, 193-5쪽

- 또한, 그룹 내 주력기업의 매출 비중은 1997년까지 감소하여 다각화 정도가 강화되어 왔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주력 업종의 역할이 강화됨

< 대규모 기업집단 내 주력기업의 매출 비중 >

(단위 : %)



자료 : 이한득, “수익성과 사업다각화 어떤 관계인가,” LG주간경제, 2003.11.26

주 : 46대 기업집단에서 매출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의 매출액 비중 평균치

○ 한국 기업의 성장 전략이 비관련 다각화 위주에서 대형화·전문화로 전환된 데에는 선진 지배구조 도입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및 OECD 등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급격히 변화(<부표> 참조)

-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창업자(및 가족)의 지분이 지속적으로 축소, 최대 지분 제한선 폐지,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실시 등 창업자 소유권 보호제도들이 폐지됨
- 또한 자본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에 따라 기관투자자, 외국인,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

- 소위 한국형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면서 발전

- (소유구조) 창업자 가족은 분할승계, 계열사 지분 확대 및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함
- (지배구조) 영미식 지배구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도입, 전문경영인 권한 위양 등을 통해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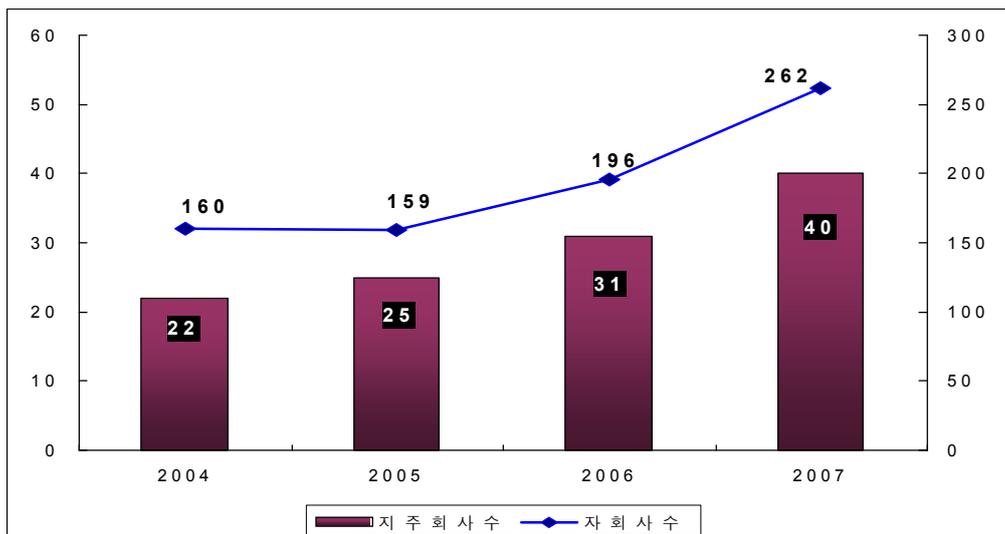


○ 기업의 소유구조는 계열사 지분 확대 및 지주회사제도 전환,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시장 감시자 제도 도입을 큰 축으로 발전

- 계열사 지분의 확대 및 지주회사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경영권 유지

- 10대 그룹의 경우, 1990년대 들어 1997년까지 소유경영자의 직접소유지분과 계열사 지분 모두 감소하였지만, 1997년 이후부터는 직접소유지분은 계속 하락한 반면 계열사 지분은 급속히 증가하여 지배-소유 괴리도가 증가함
- 1999년부터 허용된 지주회사제도가 급속히 확대, 2007년 8월 기준, 40개 지주회사 및 262개의 소속 자회사가 영위 중임

< 국내 지주회사 및 자회사 현황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은행
 주 : 각 연도별 8월 기준

-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시장 감시자 제도 도입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2001)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 전문 경영인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되어 자율경영의 범위가 확대됨
- 특히 창업자 자손에 분할 승계되는 과정에서 동종 계열들이 결합하여 업종 전문화가 강화되는 특징을 보임

< 상장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도입 현황 >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감사위원회 설치	24.8	24.8	26.4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2/3이상	24.8	24.8	26.4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존재	59.3	69.8	76.4
추천위원회 또는 보상위원회 설치	20.5	18.6	18.6
사외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장	3.5	4.3	5.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측정'

< 상장사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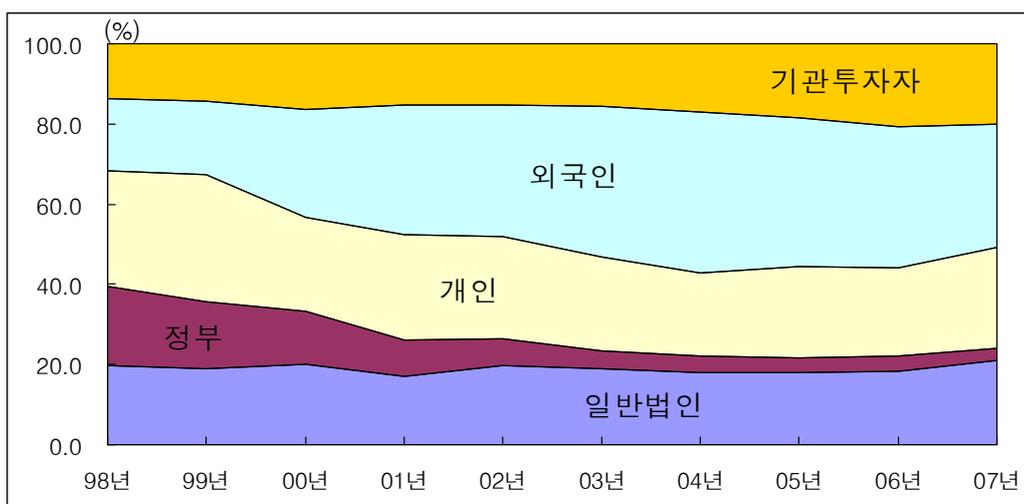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상회사 수	515	637	655	657	673
사외이사 수	1,222	1,383	1,467	1504	1554
1사당 사외이사 수	2.37	2.17	2.23	2.29	2.31

자료 : 한국상장사협의회

주 : 코스닥상장사를 제외한 주권상장사 대상

- 한편, 기관 및 외국인의 영향력이 급격히 상승, 정부 및 개인의 역할 축소
 - 외환위기 이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소유가 증가하고, 정부 및 개인의 주식 소유가 감소하면서 시장 감시 기능이 확대됨

< 국내 상장기업 주식 소유 분포 추이(시가총액 기준) >



자료 : 증권거래소

5. 불안정 · 저수익 기업에서 안정적 · 고수익 기업으로

1) 위기와 기업 대응

○ 위기 상황마다 성장과 내실을 적절히 조절하며 발전적 성장 기회를 모색

① 부실차관 기업 사태('69년~'72년)

- '60년대 한국 기업은 '50년대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 대외 지향적 산업화 전략 추구

- '60년대 초 두 차례의 금리 및 환율 현실화는 수입대체 산업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대기업들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었지만, 이로써 수입과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동시에 존재하였음
- 기업들은 '50년대 세계적 추세이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함
- 투자재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혜택을 주어 기업을 유도함

- '60년대 부실차관기업 사태는 기업으로 하여금 신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60년대의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은 경공업에 한정됨으로써 지속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음
- 대내적으로 중공업 산업에 대거 진출하고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건설을 중심으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정신이 발휘됨

② 중화학 과잉중복투자와 중화학 조정('80년대)

- 중화학공업 부문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경제의 선도 기업으로 부상

-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산업기반 확충 및 기술력 확보 경쟁이 강력히 추진

- 중화학공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외형적으로 급성장함으로써 이후 발전하게 되는 전자, 자동차, 에너지, 철강 등 차후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음

- 중화학공업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이후의 산업발전 로드맵 제시

- 중화학 부문의 과잉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함
- 이에 따라 정부도 은행 민영화 등 과거 경제정책의 핵심적 기구들을 민간 기업에 넘겨줌
-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은 전자, IT 등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③ 1·2차 오일 쇼크('73년~'74년, '78~81년)

- 경기 침체 속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 위협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

- 건설사에 1년 간 사업을 강제 종료 등 경기 침체로 동기간 도산한 국내 기업은 1,500개 이상으로 추정됨
- 화력·석유발전 비중 축소, 전력요금누진율 확대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사업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이 생겨남

- 기업은 불황 극복 의지로 내실 다지기와 신기술 확보 노력에 주력

- 사내 에너지 절약 운동, 원가절감 노력 등 전방위적인 생산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둠
- 현대건설, 동아건설 등이 중동건설 시장에 본격 진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본격화로 관련 기술력을 습득하는 계기가 됨
- 군수산업 관련 기업·포항제철 등이 중화학 공업 기반 확대를 꾀했으며, 새한자동차 같은 경우 발빠르게 디젤자동차를 개발하여 현대자동차를 위협하기도 함

④ IMF 외환위기(1997년)

- 외형적 성장이 가진 한계가 표출된 사건

-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기업의 규모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국제 개방과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시장의 규율과 평가가 기업 경쟁력의 관건으로 부상하면서 질적 기준이 강화됨
-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의 기준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주요 기업 평가 기준으로 등장함

-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로 활용

- 글로벌 경영 경험부족과 국가경제 운영 미숙이 위기를 낳았지만, 이후 한국 기업들은 경영의 선진화와 내실 다지기로 대응함
- 재무 건전성 제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함
- 과거의 국가의 보호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금 확보,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음

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2008년 현재)

- 고유가, 국제 원자재가 급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내수부진과 경상수지 악화로 국내 경기 침체 지속

- 정부는 현재 상황을 '3차 오일쇼크' 수준으로 판단하고 물가 안정, 초고유가 1단계 위기관리 조치와 환율 안정 방안을 강구함

-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함께 대체 에너지 등 신사업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

- 원가절감 노력, 에너지절약 종합 대책 수립과 홍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
-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해외 자원개발 등 관련 신산업 투자 확대에 노력함

2) 기업 경영성과의 국제 비교

○ 한국 기업은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수익성(경상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모두 대폭 개선됐으며, 다만 수익성은 아직까지 미국 기업에 비해 열세

- (성장성) 비교 대상 전기간 한국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이 가장 높음
 -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던 한국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
- (수익성) 외환위기 이후 경상이익률이 대폭 증가함
 - 외환위기 이후 금리 하락 및 차입금 감소에 의한 금융비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급속히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안정성) 부채비율이 116.0%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과 안정성 위주 경영으로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유지

< 기업 경영성과의 국제 비교 >

(단위 : %)

구분		'81~'90	'91~'97	'98~'01	'02~'05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한국	17.3	13.9	6.4	9.3
	미국	4.1	5.0	2.5	6.3
	일본	4.6	0.4	-2.0	2.3
수익성 (경상이익률)	한국	2.6	1.7	0.4	5.9
	미국	6.6	5.9	6.8	7.6
	일본	3.5	2.8	3.0	4.0
안정성 (부채비율)	한국	341.6	317.6	227.6	116.0
	미국	124.0	160.5	160.1	150.0
	일본	284.7	206.5	167.4	145.9

자료 : 한국은행

주 : 제조업 기준

Ⅲ. 한국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 및 발전 과제

1) 문제점

- 첫째, 글로벌 기업들 대비 외형 규모나 전문화 정도가 아직까지 열세
 - 세계 상위 10대 기업 평균 매출액이 2,599억 달러인데 반해 국내 기업은 427억 달러로 1/6 수준에 불과함
 - '2008년 100대 글로벌 브랜드'(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119억 달러(58위)로 1위 기업인 구글(Google)의 브랜드 가치(861억 달러)의 14% 수준에 불과함
 - 또한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은 관련 다각화 비중이 낮은 반면 비관련 다각화 비중이 높음

- 둘째, 기업 수출 구조가 특정 상품과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불안정한 상황
 -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디스플레이·조선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함
 - * 특히 IT 부문만을 보면, 반도체·휴대폰·평판디스플레이 등 3대 품목이 전체 IT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2%(2008년 7월 기준)로 집중
 - 또한 중국·미국·일본 등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42%로 수출국이 한정되어 있어 이들 국가 경제의 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함

- 셋째, 원자재·금융 부문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기업 운영 구조를 보유
 - 국내 기업들은 원유, 원자재 등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상품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원가구조를 보유함
 -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수익성이 환율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금리 변동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관련 위험 등의 노출도 상대적으로 큼

- 넷째, 업종별·기업 규모별 양극화, 노사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주력 업종·비주력 업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노사 문화도 글로벌 경쟁력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함

- 결국 이와 같은 양극화 문제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 비생산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상생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

- 다섯째, 기업가 정신 후퇴 및 반기업 정서 확대

- 부자와 기업인을 투기세력의 주범, 부도덕한 성공으로 몰아왔던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인들의 개혁정신을 퇴보하게 만든 측면이 있음
- * 엑센투어가 2001년에 세계 22개국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반기업 정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함
- 실제 우리 국민의 기업 호감도 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45.6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대한상의 ·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조사 결과, 2007년 6월)

2) 발전 과제

- 첫째, 세계 500대 기업 30개 이상, 세계 1등 상품 300개 이상 보유로 국가 순위 5위를 달성

- 한국 기업은 2007년 세계 500대 기업에 15개사가 포함되어 국가별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하였으며, 5위는 영국 33개사, 6위는 중국이 24개사를 보유함
- 2007년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 수는 121개로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국가별 순위 10위에 해당하며, 2005년 기준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 보유 5위 국가는 280개를 보유한 일본이 차지하고 있음
- 기업들은 끊임없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현재 2배 수준인 30개 이상의 기업이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력 제고,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으로 1등 상품 확대에 주력함

- 둘째,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을 추구

-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40년에 불과하며, 일본과 유럽 기업의 경우 13년에 불과하며, 최근에도 GM 등 세계 1등 기업의 위기가 화두로 떠오름
- 100년 장수 기업의 비결은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고,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수 조건임
-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 등 제 2위 외환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기관리는 지속가능경영을 담보할 수 있음

- 셋째, 신기술(5T : IT, BT, NT, ET, ST) 기반 고부가가치·첨단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

- 원유·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산업구조상 신기술에 기반한 첨단 상품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고령화, 노사 갈등과 같은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기반으로도 작용함
- 또한 금융·물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넷째, 상생의 협력 문화를 구축

- 성숙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경제 구조상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M&A나 제휴 등을 통한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필요함
- 또한 대기업의 자금·마케팅력에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력간 전략적 제휴는 양극화 문제 해소와 상생의 문화를 이룰 수 있음
-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진 노사 관계 정착도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이라는 문제의 해법이 가능할 것임

- 다섯째,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서 존경받는 기업상의 정립이 필요

-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 강화됐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존경받는 기업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평판 강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임 **HRI**

백 홍 기 연구위원 (3669-4124, hkback@hri.co.kr)

전 용 복 연구위원 (3669-4120, ybjeon@hri.co.kr)

< 부표 > IMF 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거시경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및 99년중 경상수지 적자를 경상GDP 대비 1% 미만으로 유지 ·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억제 · GDP성장률은 98년 3% 수준,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통화·외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축통화정책 유지 · 현재 14~16% 수준인 단기시장금리의 상승 용인 · 탄력적인 외환정책을 유지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정책 부담완화/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98년 긴축재정정책 유지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세원 확충 · 소비세·특별소비세·교통관련 세금 등의 세율 인상
금융정책	<p>(1)금융부문개혁법안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합금융감독기구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에 의한 감사의무화 하는 법안 통과 <p>(2)구조조정 및 개혁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금융기관 폐쇄, 생존가능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이나 자본확충 도모 · 예금전액 보장제도 3년내 종료, 제한적인 예금보험제도로 대체 · BIS 기준에 의한 금융기관 감독 제고, 금융기관 지원시 투명성 제고 · 금융기관의 회계기준과 정보공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 · 대형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국제공인기관이 감사 · 부실종금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종금사 감독기관의 인력을 증대 ·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에 대해 은행자회사 및 증권사 설립 허용 · 한국은행의 대외준비자산 관리는 국제적인 관례에 근접하도록 검토
기 타	<p>(1)무역자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 등을 폐지 ·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을 제고 <p>(2)자본자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97년말까지 50%로, '98년말까지 55%로 확대 ·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주식 4%초과 취득 제한적 허용 · 외국투자가의 국내금융상품, 국내회사채에 대한 투자 무제한 허용 · 투자절차의 간소화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축소 <p>(3)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계기준 적용(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연결재무제표 제공) · 은행대출 상업성중중(지시금융중단, 정책금융 이차지원 재정에서 부담) · 개별기업 구제를 위한 정부보조금 또는 세금감면 혜택 중지 · 금융실명제 유지 (다소의 수정은 가능) · 기업부채비율 감소조치의 마련 및 실행 · 채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제도 변경 조치의 마련 및 실행 <p>(4)노동시장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p>(5)정보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보유액에 관한 자료 정기적으로 공표 ·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를 연2회 공표

< 참고 자료 >

-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분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7.10.04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측정', 2005.09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7년판』, 2007.07
- 박필재, '2005년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과 변동요인 조사', 국제무역연구원, 2007.08.14
- 월간현대경영, 『현대경영』, 2008.08
- 이근 외, 『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진화 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이한구, 『한국 재벌사』, 대명출판사, 2004
- 이한득, '수익성과 사업다각화 어떤 관계인가', LG주간경제, 2003.11.26
-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1999
-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비봉출판사, 1998
- 정구현 외, 『한국의 기업경영 20년』,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최정표, '빅딜산업정책 개선방향 :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회 산업정책토론회 발표문, 2002.06.26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 각 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2007.12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호
- Gwartney, J. & R. Lawson(2007),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Economic Freedom Network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1	5.0	4.9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8	4.7	3.5
	민간소비 (%)	7.9	-1.2	-0.3	3.6	4.5	4.5	3.4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6	4.0	4.3
	건설투자 (%)	5.3	7.9	1.1	-0.2	-0.1	1.2	2.8
	설비투자 (%)	7.5	-1.2	3.8	5.7	7.8	7.6	6.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66	54	60	-1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46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33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1)	(16.6)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8	4,27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9.7)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3.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3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9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0